

만남

12

2020
통권 562호

성탄특집
코로나19시대의 크리스마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모든 것 주심 감사! 2020 추수감사주일

-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와 추수감사 음악예배 열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11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매일 아침 6시(토요일 6:30분) 본당에서 열렸다. “참으로 특별한 여행—축복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기도회는 찬양과 말씀, 기도회 시간과 함께 교구와 부서별로 선정된 중·장년, 청소년, 아동부 어린이들이 요일별 간증자로 나와 각자의 신앙 간증을 발표하며 세대 간 소중한 영적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기도회 기간 창세기 22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성경 본문 속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영락 성도들 모두가 결핍 중에도 찬송을 발견하고 감사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권면했다. 본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했다.

추수감사주일 당일이었던 15일 찬양예배는 음악부 연합찬양대 주관의 추수감사 음악예배로 열렸다. 전통적인 클래식 찬양과 우리의 국악 가락이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감사 찬양이 울려 퍼졌다.

최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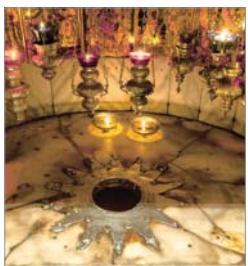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성탄, 그 처음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김운성
교회창립 75주년	04	영락교회, 이 땅에 세운 천국시민의 고향 신정호
성탄특집	06	우리가 가장 추울 때 오신 예수님 조두형
	08	애니아의 집에는 작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조지영
	10	IWE 성도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국제예배부
	14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황재영
다음 세대	17	취업멘토링(2) 자기소개서와 사진이 중요
	20	대림절, 기다림 가운데 희망으로 신주현
	22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이희연
땅끝까지 이르러	24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선교의 사명 차동혁
	26	아프리카의 심장에 복음일꾼을 세운다 강병화
	28	복음이 시작된 그 곳에서 한 알의 밀알 되어 김정혁
	30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희재
영락의 올타리	31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제자양육훈련 전태성
	34	일상의 삶을 영성생활로 만들어라 유해룡
	38	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강단장식팀
	41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 박규성
	44	젊은 가정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문경화
	46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력 밥상 권오란
야곱의 우물가	49	한 친구 운동 말씀묵상 기도문
	50	부부가 함께하는 묵상 현재호
	52	2주 격리기간 중 성경을 통독하다 루이스 코딩턴
	54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조보경
문화광장	55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최승도
	56	크리스마스 축제와 친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신화
	59	기쁜 소식 조현숙
교회소식	60	2020 한경직 목사 기념상 외
	61	12월 목회력
	62	편집장 레터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베들레헴 예수탄생기념교회 지하동굴 안 예수 님 탄생자리에는 은으로 된 별 모양이 장식되어 있다(일명 베들레헴의 별). 별 둘레에는 라틴어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 김한기 집사

성탄, 그 처음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초등학교 4학년 즈음 노회가 주최하는 성경퀴즈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은 요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했고, 정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다분히 주관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품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병들고 쇠약해지는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의 가장 처음에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는 양심을 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첫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역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독교는 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제자 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가지는 신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지는 신분은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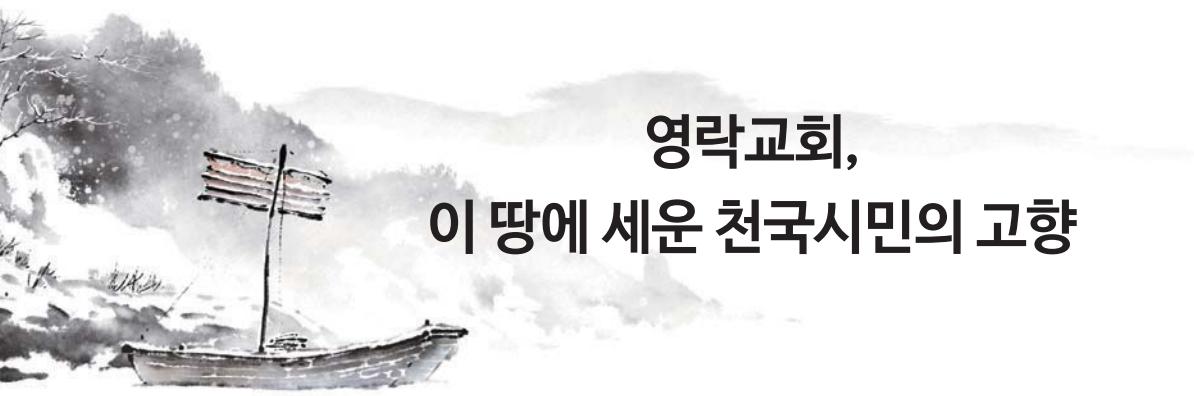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의 단계를 건너뛰는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주의 종, 봉사자, 목회자,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제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익숙하지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내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망각합니다. 죄인임을 망각하니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 회개를 무시하는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천국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를 잊어버린 이상한 기독교는 천국을 상실하고 땅의 나라에 함몰되었습니다. 땅의 나라 욕망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천국이 아닌 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찾습니다. 기도의 상당 부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왔고, 기복주의 신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심,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복을 잊었습니다. 교인이라 하면서도 죽음 후의 천국보다, 장례식장의 조화 숫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지도자요, 랍비로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추켜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를 찌른 예수님의 비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하여 가르치는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소용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올리시는 분이요, 그것이 궁극적 구원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탄은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성탄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값싼 축하 대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탄의 첫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남**



영락교회, 이 땅에 세운 천국시민의 고향

영락교회 창립 75주년을 축하합니다.

영락교회는 남북 분단과 월남, 공산주의자의 박해, 순교의 아픔을 이기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국 최초의 초대형 교회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교회 성장 면에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락교회는 사회봉사와 선교에도 헌신했습니다. 보린원, 경로원, 모자원, 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학교, 월드비전 등 영락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5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최초로 아프리카대륙에 선교사를 보내는 등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개척자와 추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두고 온 고향

우리 가곡에는 고향과 관계된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1934년에 발표된 ‘고향 그리워’도 그중 하나입니다. 4분의 4박자 곡으로 밝은 분위기의 노래이지만, 로맨틱한 서구풍의 서정과 격정의 기복을 담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집니다/ 시냇물은 소리 높여 쫄쫄 흐르고/ 처량하게 기러기는 울며 나는데/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맑은 하늘

쳐다보며 눈물집니다.” 아마도 초창기 영락 교인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지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대거 월남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해방 이전에 7할 이상의 장로교인들이 이북에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의 초기 교인들도 이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는 130년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하며 탈북민들을 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락 10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두고 온 고향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고향

영락교회는 월남한 실향민들에게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아브람처럼 교회로 모여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헤어진 가족과 친지들의 소식을 듣는 이산가족 상봉의 통로였습니다. 실향의 아픔을 찬송으로 달랬고, 두고 온 고

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천만 이 산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국적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시민으로 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시민의 현주소가 곧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이 사실을 극적으로 증거했습니다. 6·25전쟁으로 피난을 떠나도 머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1·4후퇴 이후에 흩어진 교인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구, 부산, 제주도에 영락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때 일입니다. 천국시민의 새로운 고향이 확장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 영락교회를 섬긴 목회자들은 모두 뛰어난 지도자들이십니다. 영락교회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진 천국시민의 고향으로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원한 고향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도 영생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풍상을 겪으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교·교육·봉사·친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겪고 있습니다. 분단이나 전쟁의 고난과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

다. 경건하고 절제하는 새로운 기독교문화를 세워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500여 총대들이 37개 교회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회집했습니다. 제105회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저출산과 노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사회로부터의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사학법 개정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운 한국 교회 여건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돌파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신정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105회 총회장
전주동신교회

우리가 가장 추울 때 오신 예수님



더 간절하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추운 날 오셨어?”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의 질문을 기억합니다.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추울 때 오시는 분이야.”

2020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누추하고, 어두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마구간처럼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짜를 확인하다가 “아, 곧 크리스마스네?” 혼잣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눈부셨던 어떤 기억을,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시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어느 곳을, 누구를 떠올리며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화려한 장식도, 산타도, 세일도, 선물도, 코로나19도 아닙니다. 유난히 혼란스러웠던 올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여전히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교회마다 준비하는 축제에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아프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더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빈자리 가운데, 더 남루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 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마구간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누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구유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작은 자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작은 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장남 둑이었고 차남과 나머지 형제들의 사회적 지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십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미모와 다산이 여성의 능력과 가치로 통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택하셨습니다. 사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롯,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작고 복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작은 자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의 밥이 되거나 힘이 되어주는 겸손한 생명이 머무는 곳입니다. 더 낫아질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선택한 젊은 부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 위에 임하십니다.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나의 작음’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처럼 당황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작아짐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마구간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누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구유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영광 가득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날, 두려운 세상도, 작게만 보이는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오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날. 베들레헴에 나타난 천사, 그 기쁨의 선포를 우리 모두 듣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남**



조두형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선교부(농어촌), 의료선교부

애니아의 집에는 작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애니아의집’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1년 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의 성탄 예배를 드린다.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지곤 한다. 애니아의집 가족이 악기 연주를 할 수도 없고, 연극공연을 할 수도 없고, 율동도 할 수가 없으니, 초대한 손님들께 보여드릴 이벤트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어떻게 하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나누고 고민한 끝에 애니아의집 가족만의 독특한 성탄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상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줄거리를 짜고 출연 계획과 연출, 소품 제작 등의 과정과 일주일간의 촬영을 거쳐 우리는 어설프고 다소 산만하지만 소박한 애니아의집 가족의 성탄 메시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아침 경건회 후 다 같이 모여 사회를 가졌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우리는 영상물의 완성도보다 준비 과정 중에 부어 주셨던 풍성한 은혜로 기쁨의 축제를 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충만하게 전해졌으리라고 믿는다.

2020년 올해도 우리는 동일한 고민을 한다. 표현에 제약과 한계가 많은 애니아의집 가족이 어떻게 하면 고마운 분들께 성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장애인요양시설에 대한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고마운 분들을 초대하지도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아의집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장애인복지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 올해도 변함없이 감사의 마음을 넉넉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지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애니아의집이 겪은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본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외출도 방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이 단절되어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애인들이 먼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보다 직원들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대부분 예방적 자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손 놓고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 장애인들을 더욱 고립되게 할 수 밖에 없기에 기도하며 장애인들의 안전과 행복한 일과를 위해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다.

시설 내부에서도 총간 이동을 금지했고 되도록 생활 단위 외의 사람들과는 접촉을 피했다. 그러다 보니 애니아 가족끼리도 서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이는 라디오’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시도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의 모



습과 소리에 집중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9월 두 번째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데이’에서는 생활 단위별 확실한 의사소통을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기기 사용도 원활해져서 한층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고, 각종 외부행사도 원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 가을 나들이는 놀이공원에 가는 대신 애니아의집 안에 바운스 놀이기구를 설치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마트를 우리 시설 안에 꾸며 외출하는 기분이 들도록 했다. 캠핑을 못 나가니 옥상 하늘정원에 텐트를 치고 조명을 달아 삼겹살을 구우며 캠핑 기분을 냈고 카페를 만들어 멋진 브런치도 즐겼다. 반응과 만족도는 백 점 만점에 백 점! 역시 몸을 움직여야 활력이 생기고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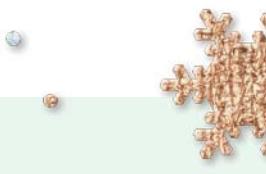
시설 방역도 큰 과제였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방역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1일 2회 이상 전체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행했다. 덕분에 이제는 방역전문가들이 다 되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마스크 쓰기의 일상화였다. 미세

먼지로 마스크를 사용할 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숨을 쉬고 일을 하며 원활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원들이 단합된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우리만의 자신감도 생겼고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팬데믹이 와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겨낼 것이다. 우리 삶의 과정과 상황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본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를 것이다.

애니아의집 가족에게는 우리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깊은 장애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찾아와 일하신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작은 예수님을 대하듯 애니아의집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듯 애니아의집 가족에게도 코로나를 잊고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안남**



조지영 집사
중구·용산교구
영락애니아의집 원장



■ 성탄절 새벽 찬양으로 기쁨 나눠

태국 인구의 90%는 불교도이고 소수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태국을 방문하시면 거의 모든 곳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장식된 것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직원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있고, 쇼핑몰에는 눈사람을 동반한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져 있으며, 학교에서 아이들은 징글벨 노래로 공연을 합니다.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태국 문화의 근간인 즐거움을 이유로 들 수 있고, 관광 및 상업주의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 축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정말 멋진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기에 교회들은 전도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선물을 나누며,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 식탁을 나눔으로써 전도합니다. 태국인들은 대부분 친척이나 친한 친구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교인들은 이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고자 전심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국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12월이 가장 분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매년 12월 초가 되면, 가



크리스마스 연극을 마치고

족들은 이곳저곳에서 방문하여 오는 ‘천사’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된 천사들은 각 가정을 돌며 찬양을 하고 특별 헌금이나 음식, 선물과 화평의 인사를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항상 친구들과 성탄 찬양 가는 것을 좋아했고, 새벽 1시가 넘어 간식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성탄 찬송을 부르던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웃음소리, 기타 소리, 그리고 차가운 밤공기가 그립습니다. 12월 24일이나 25일 밤이 되면, 우리는 그린하우스(greenhouse)라고 부르던 곳에 모여 축하의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름처럼 녹색 지붕이 있었고 바닥에 벗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앙에 불을 피우고 벗짚에 둘러앉아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후 저는 학업 때문에 치앙마이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서 만난 교회들 역시 크리스마스 몇 주 전부터 성탄 찬양을 다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서로 협력해 겹치지 않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학업과 생계유지로 분주하게 살다가도, 성탄 시기가 되면 이러한 축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협력합니다. 그런 의

미에서 성탄은 모두 집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함께 축하하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탄을 올해도 기대합니다.



오플 준라팟
(Ople Junlapat)

성탄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사흘간 예배

인도네시아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교회 교단도 다양해서 저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다른 경험과 인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탁사람들(Batakneese)이 만든 루터교회 HKBP(Huria Kristen Batak Protestan)에 출석 하던 경험으로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도네시아의 소수 종교로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지요. 가정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더 큰 도시에서는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 있고 각종 이벤트와 축하 행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사

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많습니다. 학교, 이웃, 가족과 친지들끼리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에 너무 자주 가야 한다는 이유로 심술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경험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의 고향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 예배가 크리스마스 당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촛불을 점등하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는 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전통은 서로가 맡은 성경 구절을 회중 앞에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까지 모두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돌아가며 암송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창세기 1장 1 절과 같은 구절을 외웠고, 어르신들의 경우 상 대적으로 더욱 길고 어려운 암송 구절을 시도 하다가 결국 봉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종종 보곤 했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주제로 연극을 했는데, 여러 해 똑같은 주제가 이어지다 보니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크리스마스 둘째 날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과 동일하게 26일 아침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세례식이나 입교식이 진행되었고, 성만찬과 같은 특별한 순서를 가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임과 동시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나 일을 위해 수도나 더 큰



외가 식구들의 크리스마스 파티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 분들이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기 힘든 사람도 많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고 소중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기 살로모
(Yogi Salomo M Pratama)



예수 탄생의 구유와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눈으로 뒤덮여 있는 집에 산타와 귀여운 조수들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 선물을

을 완벽하게 놓아두고 가는, 뭔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장면을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묘



어린 시절 미국에서 드린 성탄예배 모습. 사진 속 교회는 LA의 한인교회인 웨스트힐장로교회

사하는 판타지이긴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스물네 살까지 그곳에서 자랐던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자녀가 교회에서 또래 아이들과 교제 할 기회입니다. 성인 사역에 비해 어린이 사역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거나 신학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역 자체가 해당 연령에 맞는 신앙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일이 아닌,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구유와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임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매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야외극, 뮤지컬 등 재미있는 공연들이 열리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무대를 펼칠 기회였지요.

다른 한편으로, 크리스마스는 그 시간을 외로움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이웃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섬김으로써,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환대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성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환영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만남



에크남 바자즈(Eknam Bajaj)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한서(漢書)의 『조충국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첫머리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신 자요, 창조주시며,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시오, 생명이시오,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증거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 사랑을 외친다 해도, 우리는 그 간절한 외침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그냥 그렇게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불통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백문불여일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성육신하신 실체를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며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 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 오셨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사실이며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의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만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의지의 말씀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이 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소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곧 주인이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고통을 품고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로 그 이름을 믿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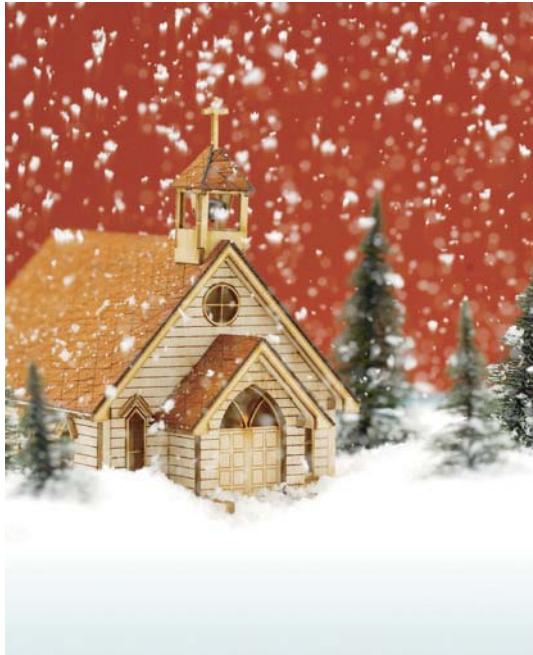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각색 병든 자,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현장범, 매국노, 창기, 목



마른 사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 죄의식에 감히 고개도 못 들었던 사람, 풍랑 만난 사람, 이미 죽어 영혼이 떠나고 시신이 썩어가던 사람,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 번민하던 사람, 원수들까지… 그 어떤 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와 회복과 소생하는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목격자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는 원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곧 언약대로 살면 그 말씀 속의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내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은혜 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절기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했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진짜로 보고 만나는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다시금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새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과 밀접한 소통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웃에게도 충만하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과는 끊어지고 이웃과는 단절된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자기소개서와 사진이 중요

- 입사지원서류 쓰기(1)

입사지원서류는 크게 보아 이력서(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력서는 지원자의 걸어온 길을 사실(Fact)에 입각해 기록하는 것이고, 자기소개서는 사실의 나열인 이력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특정 항목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나열식으로 기술한 것으로 이력서와 보완관계에 있다.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사진’이다. 그만큼 중요하므로 사진은 잘 찍어야 한다. 오래전에 많은 지원 서류를 뒤적이며 채용을 진행하는 중에 어느 여자 지원자의 사진에 눈길이 머문 적이 있었다. 사진이 멋있고, 아주 전문성도 있어 보여서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이었다. 그 비범해 보이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 통과해서 면접에 오게 되었는데, 면접장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 면접관들은 그 지원자가 매우 평범한 외모라는 데 무척 놀랐다. 하지만 사람이 괜찮고 능력도 좋아서 그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다. 입사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 그 직원과 어느 정도 친해진 후에 농담 삼아, 그때 그 ‘사진’ 이야기를 했다. “야,

그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깔깔거리면서 그 ‘사진’에 얹힌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 직원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 앨범을 찍는 사진관에서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이미지 보정’을 아주 멋있게 해주는 곳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대학생들에게 취업 멘토링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주며, 사진은 좋은 곳에서 잘 찍으라고 얘기를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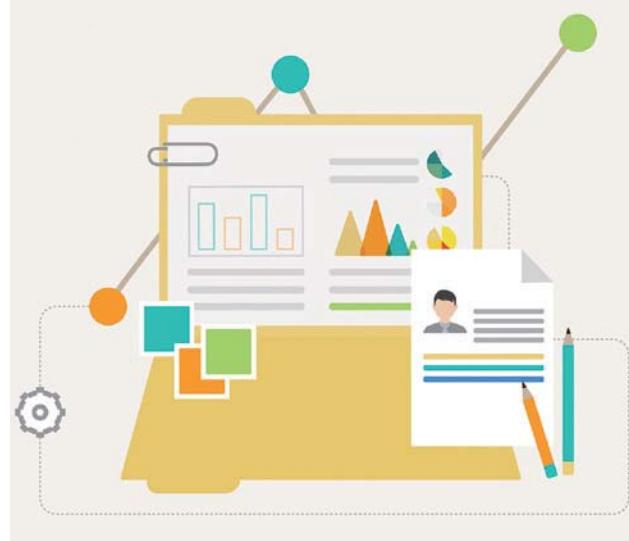
최근에 공무원 면접에서 충격받은 적이 있었다. 공무원 면접 지원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자기 손 글씨로 면접평가표의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면접장에 들어와서 면접관들에게 평정표를 제출한다. 그런데 그 기재항목 중에 한자로 이름을 쓰는 항목이 있다. 가끔 순 한글 이름을 가진 지원자들은 이 칸을 비워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날은 한글 이름이 아닌 지원자가 그 칸을 빙칸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래서 면접을 시작하면서 넌지시 말을 건넸다. “이름 한자를 안 쓰셨네요?” 그랬더니 그 지원자가 당당하게 “아, 그거요? 휴대폰을 걷어가셔요…” 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채용 면접장(9급, 7

급)에서 아주 가끔 그런 지원자들이 나온다. 물론 그 자체가 불합격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기 이름은, 더 나아가 부모님 이름은 한자로 쓸 줄 아는 훈련은 필요할 것이다.

학교명과 같이 간단한 것도 틀리는 지원자들이 있다. 가끔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의 영문 표기를 틀리는 것이다. 학교명은 고유명사여서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영문 표기를 그대로 써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교의 경우는 일반적인 영문 표기법과 다르게 학교명을 표기하는데(예 : 아주대 → AJOU Univ. 중앙대 → Chung-Ang Univ.) 그런 경우 가끔 실수하는 지원자들이 있다. 그런 이력서를 보게 되면 인사담당자들은 그 사람이 가짜 졸업생이 아닌가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점이 나쁘다면

학점은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였으나, 요즘 대다수 대학에서 학점이 낮은 과목을 재이수해서 학점을 올릴 수 있는 제도(흔히 학점 세탁이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탓에 많이 인플레가 되어서 3.5 정도면(4.5 만점) 상당히 낮은 학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그 학교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고 여길 수 있으나, 웬만한 회사의 채용담당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학점과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 앞서 자기소개서가 이력서와 보완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점이 낮은 학생이라면 그 사실을 자기소개서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학 시절에 학점과 맞바꾼 뭔가가 있다면, 그런 경험은 충분히 자기소개서의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운동, 취미, 자유에 대한 탐닉 등 학점을 얻는 것보다 더 깊이 빠질 만한 무엇이 있었다면 말이다.

외국어 ‘말하기’ 중요

외국어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TOEIC 성적을 인정하지만, 대기업들 위주로 TOEIC-speaking이나 OPIC 등 말하기 위주의 테스트 성적을 요구하는 추세다. 최근의 블라인드 채용 여파로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영어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영

어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죽하면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고, 영어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제목의 책까지 있겠는가.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내 앞에 펼쳐질 커리어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다. 스펙으로 보면 전혀 내 세울 것 없는 지원자가 영어를 잘한다는 점과 적극적인 성격 그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알려진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채용되어 이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경우도 있다.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들도 있다. 그러나 진로 방향과 무관한 자격증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칫 ‘자격증 컬렉터’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물론 지원 직무에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면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자격증 취득에 크게 목맬 일은 없다. 물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필기시험에서 가점이 주어지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턴활동은 자세히 써라

인턴 활동은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서 회사 입사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상황과 비슷한,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캐면서 입사 후에 그 지원

자의 행동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6개 월~1년간 짧더라도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다. 그러나 보니 인턴의 경험 유무가 채용에서 꽤 크게 영향을 주기 쉽다. 지난달 공공기관 면접에 참여한 바 있는데, 신입사원급 채용이었는데도 면접대상자들의 10~20%는 직장경력이 있었고, 전체의 80% 정도가 인턴 경험이 적어도 1회는 있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면접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요즘은 청년취업 문제로 인해 인턴의 종류도 다양하다. 짧게는 방학을 이용하여 6~8주 정도 하는 인턴부터, 청년인턴, 체험형인턴, 채용전제형인턴 등 다양한 인턴제도가 있으니 첫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꼭 인턴부터 경험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의 채용을 하는 곳의 입사지원서는 많이 다르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사지원서는 위에서 설명한 거의 모든 항목을 묻지 않는다. 단지 지원 분야의 경력이 있는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과목명을 열거하라는 방식이어서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항목은 없다. 그런 분야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그 분야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만날**

문의 : seankim@kairos-consulting.co.kr

제공 카이로스컨설팅

대림절, 기다림 가운데 희망으로



‘매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기억되나요? 길가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로 모여들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산타와 루돌프, 그리고 케이크는 크리스마스에 빠지지 않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국면의 2020년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저는 더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Merry Christmas(메리 크리스마스)에서 *merry*는 즐거운, *Christ*는 예수님, *mass*는 예배입니다. 즉, ‘예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낙망하고 슬퍼하며 헛헛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 즐겁게 예배해야 합-

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낙망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로나19가 없던 작년이든, 코로나19가 창궐하던 8, 9월이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든,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며 기쁘게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기다림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방의 박사들과 시므온, 안나,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렸

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모습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만남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의 삶과 실존 속에서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실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나신 점을 상기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곳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고, 시므온과 안나와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와 스가랴의 찬양, 천군과 천사의 찬

송이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함

이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축하는 혼자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오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누군가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흘어져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주현 목사
아동부 담당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남**

세계는 하나님의 것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을까? 환경 오염과 관련된 통계들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를 합친 면적만큼의 숲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미국인의 77%, 그리고 미국 어린이의 90%의 몸에서 환경 보호기관 안전기준을 넘는 납이 검출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농약으로 인해 매년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을 보면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자연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다스리고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유물론적 관점’과 자연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인간이 송배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범신론적 관점’은 모두 자연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두 관점과는 다르게 ‘기독교의 환경관’이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독교의 환경관은 하나님 의 창조 교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물질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작된 유한한 것일 뿐이다. 즉 하나님의 것인 세계에서 인간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세계는 인간의 소유물로 인간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성하기 그지없는 것이라서 손도 댈 수 없는 것 역시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그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서의 가르침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 24:1)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 41:11)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 50:10, 12)

세상과 만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생태계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윌권행위이며 결코 바르지 못한 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롬 1:2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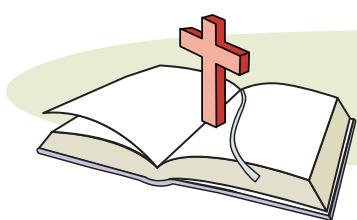
자연과 인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 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창 1:28)은 인간을 관리인으로 세우신 말씀이고 인간의 번식 의무와 지배 의무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스리라는 것이 지배자로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배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관리자의 의무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자연에 대한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연계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날**



이휘연 성도
대학부 모세마을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선교의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역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선교여행을 강행합니다. 모두가 가지 말라 하는 그곳,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그곳이지만 바울은 그 길을 떠나며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그렇게 떠난 선교 여정은 사람도, 결박도, 감옥도, 폭풍도,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교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

2020년, 국내외 선교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길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 선교는 어렵다며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영락교회와 선교부는 모두가 말리는 그 선교의 길을 강행했습니다. 이 길이 이때를 위한 우리의 사명, 곧 우리가 달려갈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열방의 많은 사람이 주께 항복하며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코로나 중에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도시가 통제되고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해외 선교 현장의 비극적인 소식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선교부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해 긴급구제 사업과 방역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굶주리던 현지인들이 음식·마스크와 함께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장을 열었던 것처럼, 국내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교회들의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에 영락교회는 성실히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아산 지역으로 대피한 교민들과 지역 교회들에 마스크와 긴급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올여름, 폭우로 수해를 입은 교회들

과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미자립 교회들,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총회 및 노회와 협력해 전국의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에 전방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코로나로 세계 선교가 멈춘 이때, 영락교회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새로 파송했습니다. 부룬디 강병화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김정혁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과 러시아 이희재 선교사님을 협동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영락교회의 선교 현장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국내에 복음 터전을 마련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축 중이었던 충주농촌선교센터와 백마 누리교회를 아름답게 완공했습니다. 포성교회와 노고단교회 등 여러 군 교회를 리모델링했으며, 청년 장병들을 전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생태계에서도 영락의 학원들과 이 땅의 기독교 학교들이 복음 교육의 산실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올해 선교대회는 선교의 사명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영락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창작뮤지컬 ‘한경직’의 일부가 코로나 중에도 온라인으로 상영되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의 삶과 영락교회의 뿌리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3일간 진행된 부흥회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

야 할 세 가지, 믿음·소망·사랑을 되짚어보며 이때를 위한 선교를 다짐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봉헌된 목적현금은 길 위에 방치된 아이들과 어르신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심는 사역을 하는 평택 길위의교회 건축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교대회 기간 보여주신 성도들의 풍성한 헌신은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일, 곧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영락의 결단이었으며, 코로나의 결박과 환란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의 손과 발을 결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느 것에도 결박당하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선교부는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 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조금도 남김없이 헌신함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이때를 위한 선교의 부르심’에 잠잠히 않고 일어나 응답함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민족과 죽어가는 세계 열방에 참된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차동혁 목사
선교부 전담

아프리카의 심장에 복음일꾼을 세운다



“아마호로!”

‘아마호로’는 부룬디와 르완다 지역말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인삿말로 많이 쓰지요.

부룬디의 별명은 ‘아프리카의 심장’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부룬디의 국토 모양이 꼭 심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둘러싸인 아프리카 중동부의 내륙국가입니다. 또 하나, 부룬디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라는 흥미로운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고 산이 많아 빼어난 경관과 청량감을 주기에 과거 부룬디에 밭을 들인 유럽인들에 의해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지형 및 환경이 비슷한 위쪽 나라 르완다 또한 이 별명을 쓰기도 합니다). 부룬디의 경제수도 부줌부라

와 맞닿아 있는 ‘탕가니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두 번째로 깊기로 유명합니다.

경제수도 부줌부라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부반자도(道)의 ‘온다바부송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 약 30만 명의 희생자를 낸 부룬디 내전(1993~2005) 당시 인근 나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몇 년 후 돌아왔을 때 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조성한 난민 정착촌입니다. 당시 난민들은 정부로부터 지붕용 양철판 몇 장씩을 지원받고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ECCA(Evangelical Church of Central Africa)라는 부룬디 현지 교회의 한 교단이 정부로부터 지



역주민들을 위해 보건소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얻었고 울산의 전하고교회와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 그 땅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 선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급수, 급식, 유치원, 영어성경공부, 교사세미나,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현지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목회자 양성 및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지만 한국의 여름 기후보다 덥지 않습니다. 부룬디는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가톨릭 60%, 개신교 15%, 토착종교 20%, 이슬람 5%)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인당 GDP 261달러(국제은행 2019)로 최빈국에 해당, 부패(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165위 – 국제투명성 기구 2019)가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현상, 높은 자살률 등이 손에 꼽힙니다.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이단 교회들이 열심히 침투 중이고 신학교육의 부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정치, 경제적 구조 속에 고통받는 서민들, 많은 한계와 어려움 중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헬벗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히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손잡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부룬디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보듬으면 부룬디를 향한, 그리고 부룬디를 통한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현지에 세워진 선교센터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 강병화, 아내 허희진, 자녀 주아(12), 섭리(10)입니다. 금번 영락교회에서의 파송식을 통해 다시 한번 부룬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부룬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라코제(감사합니다).” **만남**



강병화 선교사
아프리카 부룬디

복음이 시작된 그 곳에서 한 알의 밀알 되어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영락교회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이 더욱 절실해진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영락교회를 통해 다시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아내 유세영 선교사, 네 아들(노아, 호산나, 애단, 바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브엘세바)에서 출생한 셋째(애단)와 11월 4일 태어난 넷째(바실)가 가정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6년 반 동안, ‘유대인과 아랍인(베두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역 –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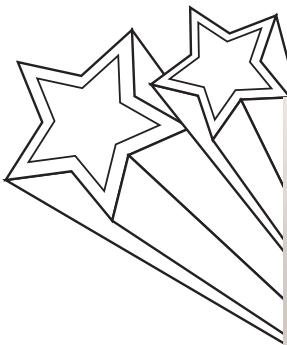
지화 전략’을 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훈련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브엘세바-네게브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신약성경을 보급하는 사역’과 ‘가정교회 유대인 대상 히브리어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지 유대인 교회와 협력해 ‘가정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며, 브엘세바 종합대학의 ‘대학생 성경공부 인도와 제자 양육’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 노아(15살)와 둘째 호산나(13살)는 현지 유대인 학교에 7년째 재학 중입니다. 이제는 한국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편해진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 ‘극빈자들을 위한 구호·난민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양인 한국 선교사가 이스라엘에서 감당하기 벅찬 현지 사역들을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번 선교대회와 선교사 파송예배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정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가정교회에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는 필자





캠퍼스 선교현장에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며

로 세계선교 현장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락교회 선교부와 영락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다른 선교사’ 이셨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저희 가정에는 큰 도전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다시금 영락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선교대회 기간, 김운성 목사님께서 선교의 정의에 관해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스라엘 선교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며, 선교는 매여있고 묶여있는 억울한 인생을 찾아가서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고 풀어내는 것(눅 4장)’임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정의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감당하신 선교이고, 바로 영락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앞서 언급한 영락교회 선교의 정의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자 합니다. 더불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부탁하신 사

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의 뜻을 품고 자비량으로 선교지를 향했던 7년 전 그때의 초심을 붙들고, 이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 40:4)

위 말씀과 같이 영락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안남**



김정혁 선교사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러시아의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 약 26년 전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수요기도회에서 영락교회 협동선교사로 새롭게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동역자와 많은 분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신 주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십니다.

파송식 전날 선교부장 장로님과 파송식에 관해 말씀을 나눌 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17)

저는 1979년 11월 아버님 소천을 전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치가를 꿈꾸던 제가 1980년 7월 예수전도단 수련회에서 홀연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회심했습니다. 이후 주께서 동행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쉽게 요약하면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말씀과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만남과 모임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굿(Good)TV 방송 녹화, 온라인 선교 세미나 발제,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 기도회 말씀 등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지요(사 55:9 참조). 특히 그동안 소외되거나 힘들었던 러



시아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을 이곳에서 만났을 때 주의 치유, 위로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온양의 최미라 권사와 아드님 에드워드, 우울증과 입양한 딸 문제로 탄식하는 어느 교수 부부, 안산의 고려인 교회, 도림동의 한중 교회, 여러 개척교회 방문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러시아 우리 집에 사는 갈랴 전도사는 로고스 배를 타면서 2년간 단기선교 경험을 마치고 힘들게 러시아로 돌아와서 디베랴교회와 미르선교회를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러시아 카프카스 지역으로 석 달 동안 선교 여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고, 알게 모르게 가시적 또는 외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만날**



이희재 선교사
러시아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제자양육훈련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는 한편 자신도 잘 모르는 중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도 한다. 처음 믿었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회복하려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잘 안 된다. 이런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우리 교회는 제자양육과 훈련을 교회의 주요 방침으로 채택하고 2019년부터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양인성 장로)를 전담부서로 신설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신앙성장로드맵’을 준비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다섯 개의 주제(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를 배우는 ‘2단계 양육핵심과정’과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는 ‘3단계 소그룹리더훈련과정’을 분기별 8주 과정으로 2019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해 많은 교인들이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2020년에는 첫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월 23일 ‘2020년 제자양육·소그룹의 날’ 행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교육 참여를 권면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을 멎추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주일 오프라인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제자양육훈련부는 비대면(uncontact)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교육을 3월부터 준비해 빠르게 대응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인들이 직접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교육에서 회원 가입하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 등록해 셀프 수강하는 방식으로, IT미디어부의 협력과 목회자들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실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2분기(5월 17일 개강)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4분기



제자양육훈련부가 주관하는 ‘2단계 양육핵심과정’과 ‘3단계 소그룹리더훈련’은 체계적 ‘신양성장로드맵’으로 자리잡았다. 위 사진은 2019년도 촬영.
원쪽 사진은 올해 진행된 온라인 교육 화면.

교육이 진행 중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주일 오프라인교육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이러한 교육과 소통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통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은 개선 과제가 많다. 교육 수강 진도 관리는 물론 교육 이수(수료)후 수료증 출력까지 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학습 콘텐츠 개발과 전달·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회의 온라인교육은 시작 단계로서, 앞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여러 의견을 하나하나 개선한다면 차차 양질의 온라인교육이 형성되리라 본다.

2·3분기 온라인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직장 근무 등의 이유로 주일 오프라인교육 참석이 어려웠는데 온라인 과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 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을 많은 수강생이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개정판 교재와 온라인 강의 영상 중 설명에서 페이지가 일부 맞지 않고, 출결 오류가 발생한 점 등 수강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고 있다.

2021년 2단계 양육핵심·일반과정 및 3단계 소그룹리더훈련과정 [안]

▶ 오프라인교육 : 분기별 8주 운영[주일]

구 분	수업 일정	휴강
1분기	3/7~5/2	-
2분기	5/16~7/4	-
3분기	8/1~10/3	대성찬, 간증주일
4분기	10/10~11/28	-

▶ 온라인교육 : 연중 상시 전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 / 연1회 수료증 수여

2단계 양육핵심과정 수료 현황

구 분	장로	안집	권사	집사	성도	대학부	청년부	은퇴제작					합계	
								은퇴장로	은퇴안집	은퇴권사	은퇴집사	소계		
수료 (5개과목)	①2019년 4분기	1	5	49	62	15	-	-	-	-	1	1	2	134
	②2020년 2분기	-	20	43	41	27	-	-	-	-	1	1	2	133
	③2020년 3분기	2	24	17	31	16	-	-	-	-	-	-	-	90
	소계	3	49	109	134	58	-	-	-	-	2	2	4	357
4개과목	2	24	81	87	58	-	-	-	-	-	4	2	6	258
3개과목	6	13	37	77	33	-	-	-	1	-	-	-	1	167
2개과목	2	7	21	29	39	-	-	-	-	-	4	3	7	105
1개과목	6	8	39	50	72	-	-	-	-	-	7	5	12	187
누 계	19	101	287	377	260	-	-	-	1	17	12	30	1,074	

온라인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잊지 못할 사연도 많았다. 불교신자였던 연로하신 어머님을 전도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함께 수강신청하신 따님(권사)의 사연과 해외로 이민하기 전에 영락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등록을 한 사연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된다.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교육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신앙성장로드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만남**



전태성 안수집사
인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차장

일상의 삶을 영성생활로 만들어라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되리라고 예측한다.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리라는 기대보다는, 이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시대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차하는 전환기 시대였다. 바울에게 ‘이 세대’란 율법의 시대를 말한다. 율법을 통해 하

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야망의 시대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바울은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세적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은혜의 시대를 위해 율법의 시대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당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이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지, 무엇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훌러가고, 또 훌러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너무 방대하고 큰 질문이다. 우리가 몸담고 실

제로 직면해 있는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의 교회는 모이는 곳이었다. 할 수 있는 만큼 성도들을 한 장소에 많이 모이게 하면, 그것을 성공적 목회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흩어지고 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공포하고 성도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흩어짐 속에서도 교회가 가능하며, 개인도 교회일 수 있다고 체험했기에, 교인들 상당수가 그것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한 사람의 대중 지도자(목회자)가 양 떼를 몰아가듯 하는 몰이꾼적 목회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영상매체를 통한 비인격 교제에 각 개인의 신앙 여정을 맡겨둔다면 그다음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교회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1.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징조들: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와 교회 영향력 약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대면적 소통 수단은 더 익숙해져 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떤 목적의 소통이든지 대면적·비대면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 위기 상황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성생활을 더욱 활성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상황으로, 중세 유럽 흑사병 후에 있었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본다.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문화가 적극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는 과도한 인권주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난 8

월 27일 대통령과 교단 대표들과 면담 때 오간 대화 속에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상징성이 가득 담겨있다. 대통령은 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김태영 통합측 총회장)는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보다 국민 생명·안전이 우선’이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매우 놀랐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 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모두(冒頭) 발언은 종교의 제한적 역할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저항해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였다. 대통령은 이미 ‘국가에 속한 교회’를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2. 일상생활로서의 영성생활 개발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자.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다. 그 당시의 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흑사병으로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멀리멀리 도망가 늦게 돌아오라고 했다. 개혁자들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며, 그의 전능의 말씀이 업신여김당하거나 무시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일상의 생활로 끌어들여서 일상을 영성생활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1) ‘일상’의 신비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설해 놓으신 신비의 동산이다. 그 동산에서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해 그 신비를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상의 영성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신비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물음이다. 물음을 던지면서 일상에 숨겨진 신비와 의미가 발견된다. 성찰적 삶을 위한 물음은 이런 것들이다. △일상의 삶이 부름을 받은 장소인가? △내가 처한 일상생활이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선택한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가 나를 안식과 조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가? △일상에서 발견되는 의미가 최종적인가?

2) 현대사회와 영성

우리의 일을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일상의 일들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영성생활이 될 수 있다. 기독교적 신학을 일상적 삶에서 실현해 낼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라 부른다. 기독교적 영성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 영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 신학의 지향점은 하늘과 땅의 통합과 일치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끌고 오셔서 하늘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역사 너머로 숨어들어 가

지 않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이 역사 속에 재진입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가신다. 이러한 성육신적 영성은 우리의 일상 삶으로 깊이 파고들어 와서 일상과 비상, 상식과 초월, 자연과 초자연, 세속성과 거룩성을 통합하는 지혜를 얻게 전해주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현해 내는 영적 삶이 성육신적 영성에 바탕을 둔 ‘일상의 영성생활’이다.

3. 영성훈련을 위한 제안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는 첫째, 홀로라는 삶에 익숙해져 갈 것이다. 그 홀로라는 삶의 형태를 어떻게 영성생활로 전환할 수 있는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틈새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대면적 거리 두기는 공감능력(compassion)을 떨어뜨리게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깨져 가면서 불안과 우울증, 좌절감과 무기력함 등의 정신적 질환이 급증하게 된다. 비대면적 문화에 익숙한 세대와 그러한 문화를 불편해하는 세대 간의 분리와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상호적 인간적 흐름이 막히게 된다. 공동체적 환경 속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묵시적으로 영적 지혜가 전승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핍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공동체적 영성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교회 성장 방법으로써 소그룹 활성화 등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소그룹 운동을 이용해 공동체적 묵상과 성찰의 삶을 개발해 가는 것이다. 공동체적 훈련들이 영성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

정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 1:15)이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은 모두 이러한 목표를 철저히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4. 일상으로서 묵상의 삶

묵상은 방법이 아니고 삶의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그 실존을 받아들이는 삶의 유형이다. 따라서 묵상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다림의 삶이 필요하다. 묵상의 기본자세는 능동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받아들임이다. 절대자의 주권에 마음을 개방하고, 그 주도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과 요구와 목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묵상 생활의 핵심이다.

되새김을 위한 질문들

1.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비대면 문화에서 대두될 영적생활의 결핍 혹은 위기적 모습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2. 새롭게 나타나게 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의 시대가 기독교 영성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측면과 어두운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3. 일생생활 속에서 영성생활을 이어 가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태도나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경험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비교하면서 보완해야 할 영적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은 지난 9월 15일 열린 <2020 포이메네스 온라인 공개강좌>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 신비에 온전히 자신을 개방하도록 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마틴 하이데거는 절대자의 신비 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자신을 묶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삶에서 오는 여러 회의와 질문들을 서둘러 막기보다는 실체 그 자체가 드러나도록 기다리라는 말이다. ‘묵상적 삶’이란 존재(하나님)를 향한 구심력을 항상 확인하면서, 창조활동(원심력)을 하는 삶이다.

5. 오늘의 영성은 통합과 일상이다

기독교적 영성은 성육신적 영성이다. 그 영성은 거룩과 세속의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으며, 그러한 세상을 촉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삶의 양태가 영성생활이다.



유해룡 목사
모세골공동체교회

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성전 꽃 장식은 신년예배부터 성탄예배까지 연간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기간, 계절에 맞춰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예전(禮典) 장식으로서 예배를 돋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전 꽃 장식이 일반 꽃꽂이 작품과 다른 것은 절기와 예전 색에 맞추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과 자연 소재로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력에는 절기와 기간마다 정해진 색(色)이 있는데, 매주 올려드리는 꽃은 본당 강대상에 드리워지는 휘장과 함께 예전에 맞추어서 색을 구성합니다. 흰색, 녹색, 보라, 빨강 등 예전 색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색은 생명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리는 꽃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요 색상의 선택입니다. 성전 꽃 장식은 단순히 예배실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11월 29일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까지의 준비 기간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을 나타내는 색은 보라색

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는 진한 보라색에서 시작하여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점점 밝은 보라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며, 성탄절은 흰색으로 예수 탄생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12월 첫 주에는 본당 전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합니다. 3m 높이의 나무에 별과 작은 등, 갖가지 장식을 달아 아름답게 꾸미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본당 2층 화단에도 작은 트리와 장식물들, 식물들로 매년 변화 있게 성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꽃 장식을 담당하는 강단장식팀은 현재 9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본당뿐 아니라 벤엘, 교육관 4층 소년부 예배실, 사랑부 예배실, 그리고 봉사관 로비에도 절기에 맞춰 꽃 장식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꽃 장식 외에도 결혼예식을 위한 선교관과 본당 꽃꽂이, 교회 장례 시 본당 장례 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곳의 꽃 장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띌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곳이 본당입니다. 본당 꽃 장식은 본당 회중석 정면과 측면뿐 아니라 목사님과 성가대 좌석에서 보

부활절 작품



성탄절 작품

대림절 작품



이는 뒷면,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는 윗면까지 고려하여 완벽한 사방입체 구조로 디자인합니다. 단상 뒤쪽에 배치되어 전면만 보이는 다른 교회 강단 꽃장식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식에는 꽃뿐 아니라 풍성하고 다양한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동·서양 꽃꽂이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당 담당자는 2~3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담당하는 주일의 예전 색과 시기에 맞는 소재와 꽃을 생각하여 작품을 디자인하고, 몇 차례씩 꽃시장을 방문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소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금요일 새벽이면 꽃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좋은 꽃을 준비하는 팀원들을 만나곤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 우리 강단장식팀원들은 꽃을 통해 예배를 돋는 예배준비자로 봉사하기 위해 본당으로 나옵니다. 본당 꽃 담당자는 4~5시간의 작업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수십 번 작업대를 오르내리며 여러 방향에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정하며 작업합니다. 또한, 본당 작업 후에는 마무리 정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도와 쓰레기와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단장식팀은 꽃꽂이 솜씨보다 토요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락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진 성전 꽃 장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계속 기도하며 연구하여 귀한 직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날**

제공 예배위원회 강단장식팀



강단장식팀 팀장 구인향 권사

황숙희 권사, 최승은 권사, 김현숙 권사, 문경화 권사
홍명숙 권사, 장지원 권사, 정미영 집사, 윤헤성 집사

본당 2층 화단 사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



‘바다가 보이는 정원’ 토마스 에드워드 모스틴(Thomas Edward Mostyn, 1864~1930)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임지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영락교회에서 교구사역은 17교구(안양·수원), 1교구(강남), 3교구(성동·광진), 부서 사역은 IT미디어부를 시작으로 자원봉사부와 목양부, 베들레헴찬양대와 시온찬양대 그리고 권사회를 섬겼으며, 성경공부반으로 금요성경통독반, 세계교회사반, 크리스천라이프반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7년간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며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교구와 부서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과 행복한 시간

을 보냈는데 이별의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3교구 식구들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게 되는 것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셨던 모든 분에게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락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만남』 원고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떠날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영국화가 토마스 에드워드 모스틴(Thomas Edward Mostyn, 1864~1930)의 작품 ‘바다가 보이는 정원’(Garden Overlooking the Sea)이 생각났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잔디

로 어우러진 멋들어진 정원에 바닷가로 향하는 커다란 기둥으로 된 문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양쪽에 기둥처럼 솟은 문설주는 있지만, 실상은 여닫는 문이 없기 때문에 소위 ‘문이 없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홀로 그 문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아마도 면 바다로 항해를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운 여인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에덴동산을 꿈꾸며 일평생 자신의 정원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눅 9:33)를 외치던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며 자신이 이룩한 에덴동산, 그곳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커다란 출세의 문을 통과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문밖에 보이는 더 커다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의 에덴동산이 전부인 양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소위 자신의 왕국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둘씩 내 곁을 모두 떠나고 결국에는 덩그러니 홀로 남은 쓸쓸한 에덴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넓은 에덴동산을 이루고 산다 한들, 또한 수많은 출세의 문턱을 넘어 높디높은 성공의 문짝을 단다고 한들,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에 천국 문턱도 못 밟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에덴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안주하는 닫힌 존재가 아니라,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심

을 기다리는 열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에덴동산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천국의 에덴동산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과 심령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뜯어내 버리고, 주님도 모시고, 더 많은 이들을 내 마음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만의 에덴동산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미움과 분노로 인해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화려한 에덴동산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함께 있어 줄 이가 없는 외로운 뒷동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더 크고 화려한 출세의 문턱을 넘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았던 막막한 현실 앞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사 8:17)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땅의 에덴동산을 꿈꾸며 성공과 출세의 문턱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팝박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즉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라파엘로(Raphael, 1483~1520)

지어 스데반은 곧 돌에 맞아 죽어갈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행 7:55) 이 그림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던 장면을 담은 르네상스 거장 ‘라파엘로’(Raphael, 1483~1520)의 그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의 돈다발이 굴러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에덴동산을 꿈꾸다 끝나버리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먼 훗날 천국의 에덴동산에서 다시금 기쁘게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박규성 목사
성동·광진교구
목양부, 권사회

박규성 목사는 11월 29일 본 교회를 사임하고 12월 1일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승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승리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gosl.net



문경화 권사
강동·송파구교구 46구역장

젊은 가정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

교구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거운 마음을 금 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역장 노트라니요? 다른 훌륭한 구역장님도 많 은데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당연히 거절했지만, 원고 마감까지 두 달 여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쓰라며 저의 거절을 만류하셨 습니다.

뜻밖의 위로와 회복

제가 좋아하고 존경해 마지않았던 우리 구역장님이 이사하시는 바람에 아무 준비 없이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준비는 저랑 상관 없는 거라 여겼고요. 구역장은 응당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역 식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함은 물론 구역 식구들의 여러 대소사를 쟁기며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할 테니까요.

창졸간에 구역장이 되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권사 교육, 여 전도회 활동, 가정사 등 제 앞가림이 분주해『만남』만 겨우 돌리는 수준 이었습니다. 구역장으로 한 일이 없으니 원고 분량을 채울 길이 없어서 마른 수건 물기 짜듯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의도치 않은 성찰의 시간을 보냈는데, 은혜롭게도 그것이 또 다른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제가 구역장이 되기 전부터 은퇴권사님이 꽤 계셨습니 다. 왕년에 왕성하게 구역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 앞에서 구역예배 를 인도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습니 다. 예배드리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다른 구역에서 교구 전도사님을 초대해 구역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도 바로 전도사님께 연락드려 날짜를 잡아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

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은 물론 우리 은퇴권사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도 간절하게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시작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 될 때마다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무조건 구역장인 우리 집으로 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시간을 놓칠까 봐 식사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해결했습니다. 은퇴 권사님들이 컨디션 좋은 시간으로 구역예배 날짜 잡기는 쉽지 않았지만 일단 오시면 너무 반갑고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남한산성 영락수련원과 가까운 편이어서 수련원 화요예배를 구역예배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내가 차리지 않은 집 밥 같은 식당 밥도 먹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외출을 부담스러워하셔서 주로 젊은 분들만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견 구역장의 꿈

구역은 교회의 기본 구성단위입니다.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교구와 구역에 소속이 됩니다. 다양한 교인들을 섬기는 구역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구역장은 구역 가정의 출생, 결혼, 장례, 직분 교육 등에 상관이 없을 수 없는데, 요즘처럼 바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에 이전같이 친밀하고 허물없는 권고는 간섭처럼 여겨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역장 나

이도 낮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역장이 되어 은퇴할 때까지 이삼십 년을 한 구역에서 봉사하게 되면 해가 갈수록 젊은 가정과의 소통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의 젊은 집사님들을 독려해서 구역장으로 세우기를 애쓰는 한편, 저는 파견 구역장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파견 나간 구역에서도 구역장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다른 구역으로 파견 나가고… 그리고 제가 속한 구역에서는 신임 구역장과 은퇴하신 구역 권사님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꿈이 작년에 이뤄지는가 했는데 유력한 신임 구역장 후보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셔서 새롭게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라도 계속 자라가고 싶습니다

구역예배와 모임들을 되돌아보면 구역장으로서 부족한 것만 생각나서 구역 식구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모이기에 협력하시는 모습에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자라남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때, 대면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멈춰있는 것 같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함께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록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른 대처와 적응이 어려운 나이지만 느린 걸음으로라도 우리의 연한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고 싶습니다. **만남**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력 밥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평상시 면역력 강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면역력이란?

면역력이란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덮고 있는 피부와 점막이 일차 방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은 일차 방어의 힘을 더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손은 자주 씻을수록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구강과 인후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차 방어선에서 막아내지 못한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와 병원균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력 수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권오란 권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로 비타민 A, C, D, E, 아연이 있습니다. 비타민A는 점막을 강화해서 바이러스 감염병에 맞서 싸웁니다. 비타민D는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과도한 면역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산화스트레스를 줄여 손상을 완화하고 면역계를 활성화합니다. 아연은 면역 전반에 관여하고 특별히 염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면역 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소 중 한두 가지만 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복잡해서 한 가지 영양소라도 부족하면 면역체계 전체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리법과 외식 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칼로리와 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열량과 당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잠재적으로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와 주요 급원식품

비타민 A	간(소/돼지/닭), 장어, 김, 시금치, 미역, 당근, 들깻잎, 고춧잎, 호박잎
비타민 C	갓, 고추, 콩나물, 감귤류, 파프리카, 키위, 대추
비타민 D	연어, 달걀, 꽁치, 오징어, 미꾸라지, 메추리알, 오리고기
비타민 E	식용유, 너트류, 고추, 땅콩버터, 들깨
아연	석이버섯, 굴, 갓, 들깨, 돼지간, 참깨, 멸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식단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면역력 밥상 수칙입니다.

- 여러 가지 과일을 매일 2컵 크기로 먹습니다.
- 신선한 야채를 매일 2.5컵 크기로 먹습니다.
- 지나치게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을 먹습니다.
- 한 주먹에 쥐어질 분량의 견과류를 먹습니다.
- 붉은 살코기는 주 1~2회, 가금류는 주 2~3회 이하로 먹고, 등 푸른 생선, 콩, 우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 간식으로는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생야채를 선택합니다.
- 야채는 중요한 영양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별 영양특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하버드대학의 음식피라미드



출처 : 미국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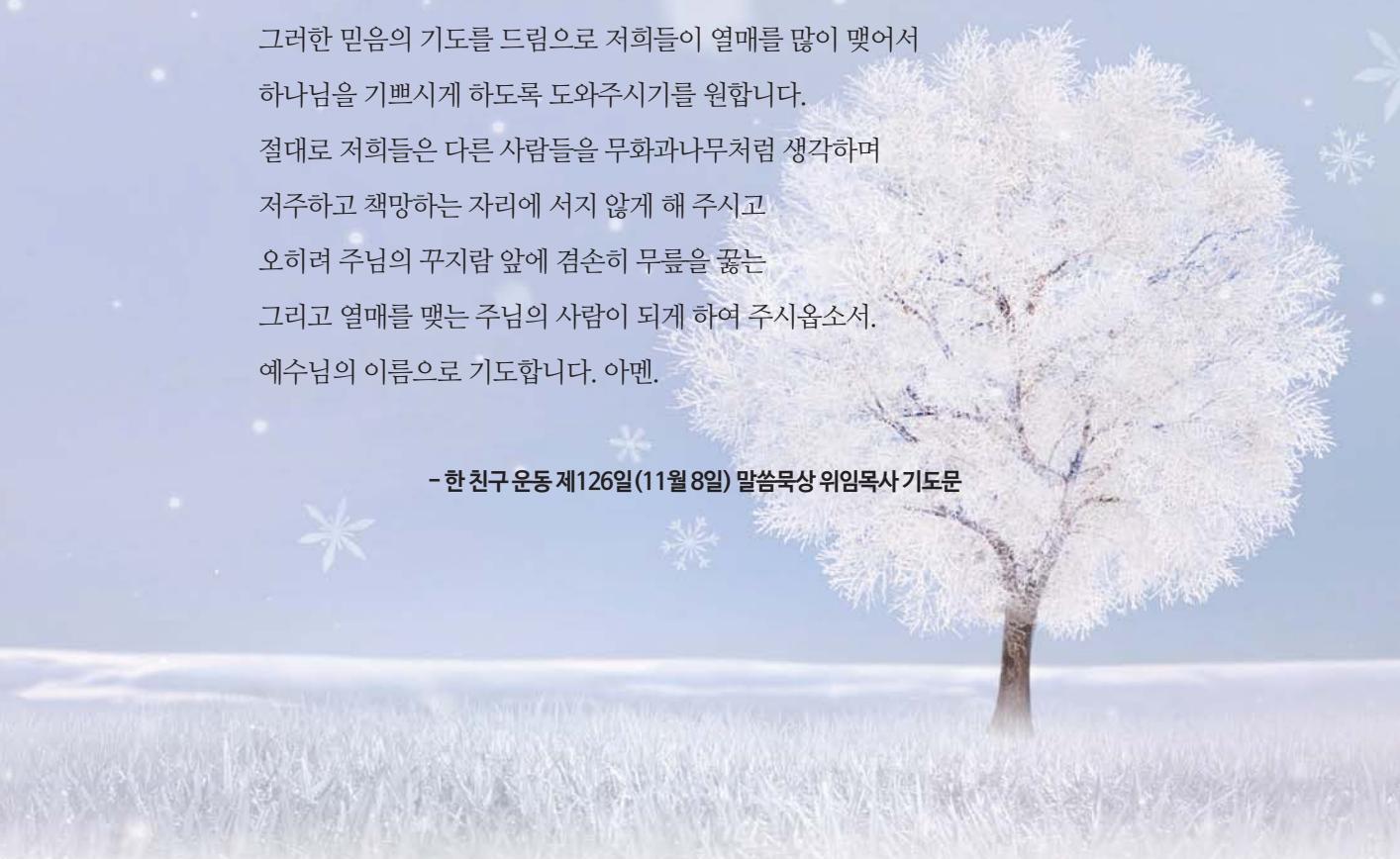
- 말린 과일이나 통조림 형태의 과일과 야채를 사용할 때는 설탕이나 소금을 넣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 음식을 보관하거나 요리할 때, 조리된 음식과 날 음식을 분리합니다. 날 음식에 있는 해로운 미생물이 조리된 음식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양소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식이보충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 또는 종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타민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쉽습니다. 햇볕을 적당히 받아 몸 안에서 비타민D가 만들어지면 면역력을 높입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비타민D 수준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말씀 묵상과 비타민D를 위한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만남**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를 즉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며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저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화과나무처럼 생각하며
저주하고 책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꾸지람 앞에 겸손히 무릎을 끓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한 친구 운동 제126일(11월 8일) 말씀묵상 위임목사기도문





부부가 함께하는 묵상



매일 새벽 6시, 우리 부부는 <한 친구 운동> 묵상을 펼치고, 먼저 그날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동이 트거나 컴컴할 때, 소리를 내어 찬양한 후에,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생각, 다짐을 나누고, 맡은 차례대로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25~30분 정도 걸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깊이 나누다가 때로는 1시간을 훌쩍 넘겨서 허둥지둥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22년 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은 아기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부처님 아들이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오랜 시간 아이가 없자 부처님에게 100일 기도 후 34세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해마다 일곱 번 제사를 지냈고,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도 다녔습니다. 미국계 은행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던 저는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과한 욕심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직장마저 잃게 되었을 때 영락교회의 집사였던, 손위 처남의 전도로 1997년 12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남이 이전부터 수없이 전도했으나 거절했는데, 세상에 기댈 곳이 없게 되자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첫 예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본당 2층 오른쪽 앞줄에서 처남과 함께 예

배드렸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해서 낯설었는데, 이철신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중반쯤 되었을 때,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체 할 수 없이 눈물콧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가장으로서 지키지 못한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배 전까지 무거웠던 몸이 무척 가벼워졌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그 후, 처남의 안내로 수요예배와 금요 예배, 기도원 철야 예배 등 공예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왔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그것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감동을 경험하게 된, 구원받은 감격으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불신자였던 어머니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으며, 교회 다니기를 반대하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셨으며, 두 아들도 교회학교에서 잘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 또한 3남선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하던 일이 잘되고 바빠지자, 첫사랑의 고백을 잊어 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2012년 가을 무렵, 다니던 회사를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몹시

좌절하였고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내가 매일 성경책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아내는 10여 년 전부터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권했지만, 아침 출근 시간이 바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함께 아침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날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7절 ‘두로에 대한 애가’의 말씀으로,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였는데, 두로를 향한 주님의 노하심이 저에게 향하신 것 같았습니다. 배에싣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실 것이라는, 마치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진노 말씀 같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는 다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매일 이른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성서유니온 책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작년에는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 1, 2권, 올해 <119>와 <한 친구 운동> 말씀집으로 아침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23년이 지난 지금, 주기도문도 모르던 저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바쁘지만 아침 식사하듯, 말씀 묵상을 통해, 때때로 위기에 처해서 갈팡질팡하거나, 낙심이 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용기도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굳건해졌습-

니다. 또한 “한 친구 운동” 말씀 카드와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 카톡방, 형제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도 짓고 후회도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친구 말씀 묵상 중 109일(10월 22일) 읍기 23장 10절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돌아보면, 그때의 눈물 나는 고난이 주님이 저를 찾으시는 소리였으며, 매일 매 순간 단련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제 모습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길을 잊고 혼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믿음이란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항상 주님의 영

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부가 되겠습니다.
아멘! **만날**



현재호 안수집사
성남·분당교구
홍보출판부 차장

2주 격리기간 중 성경을 통독하다

루이스 코딩턴 선교사 _ 북한선교부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수

8월에 아내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 3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해온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봄 학기를 잃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을 학기를 위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빌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나라는 입국자들에게 14일간의 의무적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15시간을 날아온 우리는 입국 허가를 받기 전 4시간 동안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리들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나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검역 시설에서 14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14일간 읽을 책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북한 학생 중 한 명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전 중국에 3주 동안 숨어있던 중에 성경책을 다섯 번이나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정말 감명받았고, 우리도 도전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2주 안에 한 번이라도 통독할 수 있을까? 해마다 성경을 통독하



통독을 마친 후 필자와 아내 엘스 코딩턴.
부부는 함께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다.

는 것이 우리의 규칙적인 습관이지만, 멈추지 않고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고 사로잡혔습니다. 보통 여행할 때 나는 작은 신약성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긴 했지만, 이 기회와 도전이 더욱 열성적으로 느껴지면서 우리 둘 다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 챙겼습니다. 아내 엘스베스는 작아서 들고 다니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2600쪽의 두꺼운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14일로 나누었습니다. 도전을 완성하기 위해 저는 하루 200쪽 가까운 분량을 읽어야 했고 엘스베스는 100쪽 분량을 읽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생각에 기뻤습니다. 우리는 격리 첫날 1쪽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가졌던 통독 기간중

에서도 처음 이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고생했으며, 모세오경은 통독이 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첫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둘째 날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7~8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고 먹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역사서, 성문서(聖文書), 그리고 예언서를 거쳐 마침내 신약성경에 이르렀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우리는 계시록에 도착했고, 마지막 쪽을 끝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셀카를 찍고 포옹한 다음, 우리가 방금 경험한 통쾌한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은 채 말이죠. 우리 둘 다 이번 일이 정말 멋진 모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통독이 주는 10가지 유익

- 1) 성경 전체를 읽음으로써, 성경 통독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 2) 빠른 속도로 읽으면 통일된 메시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에 조금씩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됩니다.
- 3)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함께 읽으면 구약성서가 지적한 바를 신약성서가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드러납니다.
- 4)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책 전체에 걸쳐 다른 지점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5) 하나님의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한없는 사랑과 거

룩함, 그리고 주권이 빛납니다.

- 6)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구조, 구원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7)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의 차별받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오차가 없이 완벽하고 무한히 중요함에도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기꺼이 그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 8) 수 천 년에 걸쳐 수십 명의 사람이 쓴 성경의 폭과 깊이-성경의 위대한 전망-은 성경이 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 9) 우리는 우리의 죄-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 기인한 황폐함을 오랜 역사를 관통하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더욱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 10) 성경은 마력-이 단어가 지닌 모든 좋은 의미에서-을 지닌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하고 과거 어느 때 쓰인 책보다 가장 장엄하다는 것을 통독할 때 더욱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읽어 봅시다. 통독해 봅시다. 열흘이나 두 주에 돌파해 새겨 갑시다. 여러분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만남**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2020년 상반기 교통봉사를 했다. 주일 예배 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교인들을 맞이하는 봉사이다. 처음에 이 교통봉사를 알게 되고 주일에 두 시간씩 봉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있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도 발 끝 손끝이 점점 시려오기 시작했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항상 귀마개와 손난로를 챙겨주셨지만 나는 짚으니까 팬찮으리라 생각해 “팬찮아요”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란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 교회에 돌아오자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더위가 찾아왔다. 마스크를 쓴 채 성도들께 “안녕하세요, 정문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면 마스크 안은 습기로 가득 차고 나는 땀을 빼질빼질 흘

렸다. 하지만 내가 인사를 드리면 모두 “안녕하세요” “더운 날 수고하십니다”라고 답해주셨다. 그 말씀 한마디가 힘이 되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의 발걸음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모태신앙인 나는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밥 먹듯 당연하게 주일에는 교회를 찾았다. 한 번도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의 노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교통봉사를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많은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통봉사를 통해 함께 예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공동체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조보경 성도
대학부 엘리야마을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기타모리 가조 지음 / 이원재 옮김 / 새물결플러스 / 376쪽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서 인류 보편의 문제인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아픔의 이유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프셨다는 명제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픔이었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힘주어 다룹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예수의 생애 전체가 ‘아픔의 길(via

아픔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상처로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는 주님이시다.

-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중에서

dolorosa)’이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생애도 ‘아픔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픔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남**



최승도 목사
중구·용산교구
제자양육훈련부

크리스마스 축제와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L. Watts(1674-1748) 곡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통으로 90 (3x 2:10)

(은 115)
 ANTIACH: 8.6.8.6.8.6.
 G. F. Händel, 1742
 Arr. by L. Mason(1792-1872)

1. 기쁘다 구주 오셨 네만 백성 맞으 라운 교회
 2. 구세주 탄생 했으 니다 찬양 하여 라이 세상
 3. 은세상 죄를 사하 려주 예수 오셨 네죄와
 4.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 하시 니만 국백

여 다 일 어 나 다 찬양 하여 라 다 찬양 하여
 의 만 물 들 나 아 다 화답 하여 라 다 화답 하여
 품 물 아 내 고 다 구원 하시 네 다 구원 하시
 성 구 주 앞 에 다 경배 하여 라 다 경배 하여

다 찬양 하여 라 다

라 다 찬 양 찬 양 하 여 라
 라 네 다 화 답 찬 화 답 하 여 라
 라 네 구 원 찬 원 하 여 시 라
 라 네 라 정 배 찬 배 하 어 시 라
 아 멘

찬양 하여 라 다

성탄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캐럴 중심의 성탄음악공연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저항 없이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라별로 특별한 축제를 연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전파사들과 레코드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주어 그 분위기가 살았던 기억이 난다. 또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각 교회에서 새벽송을 돌며 방문하는 가정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주님의 탄생을 알렸고, 노래를 마치면 각 가정에서 준비한 과자 등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을 모아 불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나마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어 몇 달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특히 작년에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우리교회가 주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트리도 LED를 사용해 더 밝아지고 각 나라별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어서 그곳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큰 기쁨과 의미를 더했다.

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과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의 탄생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캐럴을 중심으로 갖는 공연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저항 없이 주님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축하 음악회를 크리스마스이브에 개최하는데, 1년 중 회중

이 가장 많이 모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음악회다.

미국에 있을 때, 각 도시에서 행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들이 정말 인상 깊었다. 뉴욕 록펠러 센터의 장엄한 크리스마스트리, 캘리포니아 킹스 캐니언(Kings Canyon) 국립공원의 80m가 넘는 큰 나무 아래서 부르는 캐럴 싱어들의 노래, 1741년 펜실베이니아주에 모라비아인들이 만든 도시 베들레헴(Bethlehem)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별을 산 위에 만들어 불을 밝히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전통, 샌디에이고의 발보아 공원(Balboa Park)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야외 파이프오르간 연주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성대하게 치러진다.

성탄절 즈음에는 각 도시에서 열리는 ‘헨델의 메시아 노래 부르기’ 행사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와 독창자는 미리 준비하지만, 일반 참가자들은 연습 한 번 없이 그 자리에서 동참한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1부의 첫 합창 ‘주의 영광’부터 시작해 3부의 끝 곡 ‘아멘’ 합창까지 수백, 수천 명이 연주자이자 청중이 된다. 연습 한 번 없이 메시아를 연주하는 것이어서 음악적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필자로서는 이 행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필자가 공부했던 콜로라도 보울더(Boulder)는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인데도 시내 한 교회에서 열린 메시아 부르기 행사에 수백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참가비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출판한
<찬양가>에도 수록된 대표적인 성탄찬양

와 악보 대여비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솔리스트나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오늘 준비한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 하나이다. 가사는 영국 찬송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왓츠(Issac Watts, 1674~1748)가 1719년 시편 98편을 기반으로 작사했고, 1,6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한 미국 교회음악의 선두 주자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이 1830년에 편곡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 곡이 작곡이 아니라 편곡으로 표기되어 있다. 핸델(G. F. Handel, 1685~1759)의 곡을 Adopt(채택, 발췌)했다는 것이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33번 ‘며리 들라 문들아’ 합창의 시작 부분(도시라솔)이 ‘기쁘다 구’와 같다는 이유고 ‘만백성 맞아라’ 부분이 메시아의 2번 테너 서창 4소절과 리듬과 멜로디가 같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핸델의 곡을 편곡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영국의 음악평론가 제임스 라이트우드(J.T.Lightwood, 1850~1944)는 “이 곡은 핸델에게 힌트를 얻어 미국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로웰 메이슨이 1836년에 출판한 ‘보스턴 아카데미 교회음악선집(Boston Academy Collection of Church music)’에 처음 실린 후 큰 인기와 함께 미국 찬송가



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일찍이 언더우드가 출판한 ‘찬양가(1894)’에 수록되었다. 찬송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곡조의 이름 ‘안디옥 ANTIOCH’은 1853년 브래드버리(W. B. Bradbury)와 루트(G. Root)에 의해 출판된 ‘음악총서 숨(The Shawm, A Library of Music)’에 사용되었으며 옆에 있는 8,6,8,6,6,8은 이 노래의 운율이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이다.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모두 축하하며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자.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기쁜 소식(굿 뉴스 Good News)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님의 얼굴, 성경에 관한 그림 등을 그릴 수 있는 은혜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내가 좋아서 선택해 시작하고 유지하는 일이지만, 창작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태와 탄생에서 오는 고통도 있어 늘 가슴과 머리를 짓누른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한다면 너무도 하찮은 것이지만 여러 복잡한 일상과 여건 속에서의 창작은 체력적인 고통도 따르기에 더욱 힘들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창작의 고통은 창작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또 하나로 추가될 것이다.

하지만 창작은 결국 기쁨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쁜 소식(Good News)’을 전해주었듯, 나도 작업을 끝낸 뒤 두 달이나 앞서 성탄절을 맞이한 듯 기쁜 마음으로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태초 이래로 이만큼 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의 왕관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다짐한다. 하늘에 오르시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상징 색에 익숙하다. 그만큼 컬러가 주는 이미지가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삼색이 있다. 순수하고 무죄하신 그리스도 및 새 예루살렘의 상징은 흰색, 사랑과 희생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붉은 피의 상징은 냉혹함을 녹이는 열정의 빨간색, 영원히 푸르른 생명력을 가진 만물 및 모든 식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그것이다.

이 땅에 낮은 자 되어 자기 왕관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영광의 왕관을 쓰신 아기 예수님을 성탄 트리로 이미지화했다. **만날**

교회 소식

news letter

2020 한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자에 부산의료선교회

- 논문상은 김성호 교수(협성대), 신정자 전도사(덕장교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자로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이사장 이승도 장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념사업회는 “부산의료선교회가 의료선교 사역을 통해 구호, 교육, 선

교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함으로써 한경직 목사의 예수사랑, 이웃사랑 정신을 훌륭히 실천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경직 목사 20주기를 맞아 ‘한경직 목사 정신 찾기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진행된 ‘한경직 목사 논문상’ 수상자에는 <한경직 목사의 경천애인 사상의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김성호 교수(협성대), <경천애인 사상과 리더십 연구>를 제출한 신정자 전도사(덕장교회, 장신대 기독교사회대학원 석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2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20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취재 장덕진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서울시의사회, 영락사회복지재단에 파스 후원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1월 4일(수)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장로)가 5만1,000장의 파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서울시의사회가 전달한 파스는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지역 사회 주민들을 보살피느라 허리와 손목 등에 무리가 많이 가는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큰 선물이 되었다. 당초 재단 측은 3만 장의 파스를 후원받기로 했으나 시설별 희망 수량을 파악하는 중에 예상보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아 수량을 늘려 후원 가능한지를 의사회 측에 문의했고, 의사회 측은 재단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2만여 장의 파스를

더 후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래전부터 영락 보린원과 영락애니아의집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후원이 줄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나눔 문화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Re-Ignite, 다시 불타오르라! 청년부 예배회복 프로젝트

코로나 19시대 청년들의 예배회복을 위한 특별집회 <Re-Ignite, 다시 불타오르라!>가 지난 11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베다니홀에서 열렸다(20일과 21일 저녁집회, 22일 청년부 주일예배).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사진)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특별히 20일과 21일에 청년들에게 지명도가 높은 심종호 마커스 워십 예배인도자와 김브라이언 찬양인도자를 초청해 말씀과 찬양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들로 채워졌다.

말씀을 전한 박지웅 목사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취업과 결혼 등 청년세대의 고민과 청년공동체 사역의 어려움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이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상기시킴으로써 참



석한 청년들에게 영적 비전을 고취시켰다. 이번 청년부 특별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으며,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됐다.

취재 나광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12월 목회력

4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하반기 종강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교회창립 75주년, 임직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13일(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부 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제직회, 찬양예배 성찬, 원포인트 교육주간
20일(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유아세례식,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24일(목)	성탄절음악회
25일(금)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탄예배
27일(주일)	은퇴식, 심방준비회

※ 1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장 레터

유독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0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함과 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열악해졌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힘든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보호 캠페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평화를 간구합니다. 이것들은 이웃에게 무엇인가 베풀어야 할 고귀한 이타적 가치와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조건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심과 인자하심 속에는 도덕적 제한성과 의무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타적 행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상성(日常性)으로서 나타납니다. 그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空手來空手去)'

존재인 우리가 지닌 것의 전부는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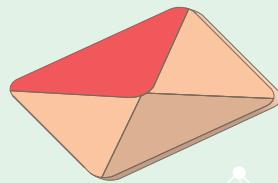
국 고결함과 존엄성뿐입니다. 이웃사랑에는

일시적 열정만이 아닌, 이웃이 처해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직접적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많은 이웃이 지금도 길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들 곁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만남』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탄특집과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그 외 다양한 연말 섹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12월호 통권 562호

발행 2020. 1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현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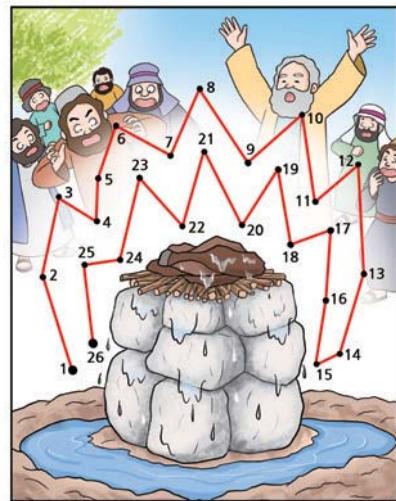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점잇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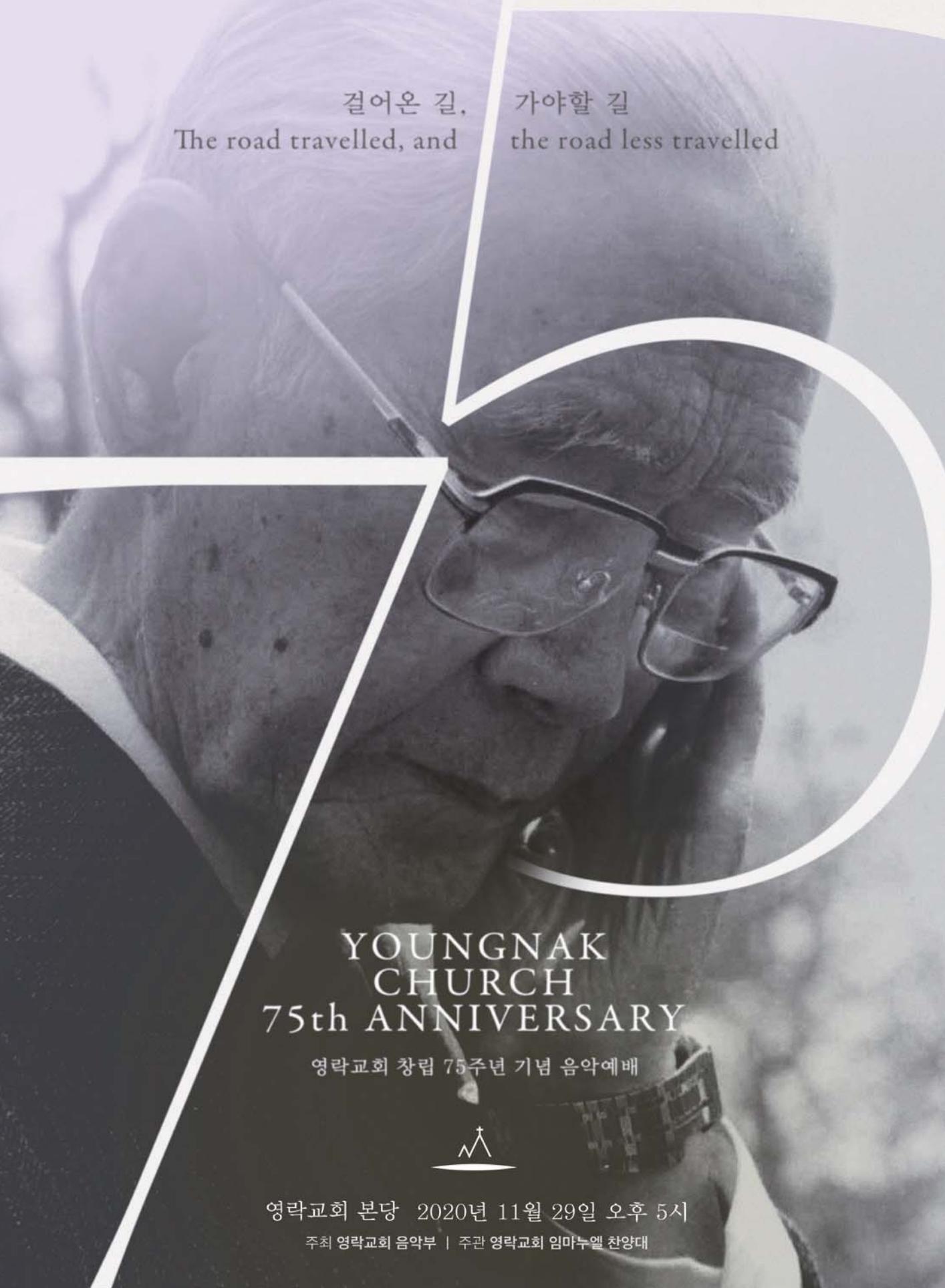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답니다. 7개의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빗, 애벌레, 삼각자, 바늘, 핫도그, 아령, 파배기도너츠)





걸어온 길.
The road travelled, and

가야할 길
the road less travelled

YOUNGNAK CHURCH 75th ANNIVERSARY

영락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음악예배



영락교회 본당 2020년 11월 29일 오후 5시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영락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G. F. Händel

2020 성탄 축하음악회

MESSIAH

— 제1부 예언과 탄생 —



• 헨델의 메시아 •

지휘 안정현 오르간 박미라

소프라노 한나형 알토 김미경 테너 조성환 바리톤 안대현

풀레기움 무지쿰 서울

영락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2020.12.24 THU 7:30 PM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주관 할렐루야 찬양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화랑

기쁜 소식 아기예수의 탄생



조현숙, 컴퓨터그래픽, 59.4×84.1cm, 2020년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8~14)